

불황에 신규 채용 갈수록 '좁은 문'... 7분기 연속 감소

지난해 신규 대졸 19만5000명 중 취업자 7만7000명 불과
비자발적 실업자 137만3000명 달해... 1년 새 8.4% 증가
N잡 증가에 超단기 알바 급증... 15시간 미만 근로 140만

경총 '최근 고용 흐름' 보고서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용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 또한 크게 증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 감소와 구조 변화로 분석했다. 최근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이라 볼 수 있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경총은 "채용시장 한파는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저하에 따라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가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증가하고,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향도 높았다. 지난해 신규 대졸자 19만5000명 중 취업자는 7만7000명으로 39.5%에 그쳤다. 특히 실업자(3만6000명)보다 취업준비자(4만9000명)가 더 많았다. 또한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3000명으로 2023년보다 8.4% 증가했다. 경총은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불황과 수출 둔화의 여파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업종별 비자발적 실직자는 건설 시장 불황으로 건설업에서 3만9000명 늘었고 수출 둔화로 제조업에서 2만1000명 증가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1만2000명과 2만5000명 늘었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를 찾는 구직자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140만6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나 여러 직업을 가지는 'N잡' 증가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늘어난 초단시간 근로자 14만3000명 중 기혼 여성이 10만 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 수

요의 상당 부분이 일가정 양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자영업자 비중 하락 경향도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20%를 하회했다. 내수 침체 등 경기 불황으로 영업 이익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장사를 접

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고용 시장은 얼어붙은 채용과 원치 않는 퇴사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여성 중심의 초단시간 근로 활성화와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 확대 등 계층별 노동이동 방향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ABS 발행 감소에도 부동산PF 규모는 '쑥'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증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ABS 발행금액은 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4조8000억 원) 대비 43.8% 감소했다. 매출채권 기반 ABS는 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 발행 감소 영향으로 64.4% 급감했다. 주택저당채권(MBS)과 카드채권,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도 모두 감소했다. 금감원은 MBS 감소의 원인을 2024년 1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상품 특별보증리본이 종료로 지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회사의 ABS 발행 규모도 각각 55.0%·55.6% 줄어들었으나 일반기업의 발행 규모는 26.6% 증가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반도체 지원으로 마이너스 성장률 끌어올려야”

상의 '한국형 반도체... 토론회' "반도체 지원금 5~6년이면 회수 직접 지급하는 방식 고려해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의원 연구단체 국가 미래 비전 포럼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김덕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0.25%(약 5조5000억 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p(약 3조7000억

원)씩 성장한다"는 것과 더불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p(약 3조5000억 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펌 1기 건설에 21조 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 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15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

을 통해 연간 약 10조 원의 최종 수요를 창출할 생산이 이뤄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는 총 1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 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GDP의 1%(22조 원)을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제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해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계투자에 지원할 경우 재정 환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장욱 보스텍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계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종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 필수 인프라 지원에 대해 "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급전 필요하신 분~” 보험사기 급증

SNS서 청년층 유인 사례 늘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 유도

네이버 대출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대출과 구인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20~30대 청년층을 유인한 후 보험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해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험사기를 행하는 신종 수법을 공개하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브로커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허위 진단서 등을 제공하며 보험금 청구를 유도한다. 주로 실손보험을 소액 청구하거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고액 진단보험(뇌졸중 등)을 이용해 보험사의 조사를 피했다. 수법이 성공하면 브로커는 약속된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받아 간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대출·구인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20~30대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SNS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경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에 응한 사람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 및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는 경우를 발견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보험회사 신고센터(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잘못된 교과서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왜곡하고 뒤틀어 놓은 역사를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보자! 학생, 학부모 모두 읽어야 할 책!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